

평화당 분당 '초읽기' 오늘 의원 10명 탈당

민주평화당이 '분당(分黨)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당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11일 당권파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사실상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탈당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당권파와 뜻을 함께하는 지역위원장 20여 명도 오는 14일 이후 탈당이 나설 방침이어서 당분간 '도미도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당권파의 탈당이 완료되면 평화당은 국민의당의 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해 지난해 2월 분당 후 창당한 지 1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분당을 겪게 된다.

비당권파인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대안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차 대안당' 창당을 통한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정치 소속 의원 대부분이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제3차 대안당 등 대안세력 구축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새로운 대안 세력을 구축해 정계개편을 시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탈당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평화당이 2%대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평화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옷을 입고 내년 총선 출마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빼든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인물 영입 또는 새로운 대안이 없는 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광주·전남의 야권 지지율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대안정치가 향후 민주당을 견제하고 민생정치를 이끌 수 있는 제3차 대안 세력 구축 등 필연적인 야권 정계개편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또 다시 오만해지고 있다는 지역 유권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세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면서 "여야 거대양당 체제가 아닌 이들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광주·전남·전북지역 평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이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비판할 예정이다.

이들 평당원들은 국민의당에서 쫓겨온 민주평화당이 다시 1년 6개월 만에 분당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 정치'이자 '철새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평당원들은 국민의당에서 쫓겨온 민주평화당이 다시 1년 6개월 만에 분당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 정치'이자 '철새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새로운 대안 세력을 구축해 정계개편을 시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탈당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평화당이 2%대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평화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옷을 입고 내년 총선 출마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빼든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인물 영입 또는 새로운 대안이 없는 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광주·전남의 야권 지지율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대안정치가 향후 민주당을 견제하고 민생정치를 이끌 수 있는 제3차 대안 세력 구축 등 필연적인 야권 정계개편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또 다시 오만해지고 있다는 지역 유권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세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면서 "여야 거대양당 체제가 아닌 이들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광주·전남·전북지역 평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이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비판할 예정이다.

이들 평당원들은 국민의당에서 쫓겨온 민주평화당이 다시 1년 6개월 만에 분당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 정치'이자 '철새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새로운 대안 세력을 구축해 정계개편을 시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탈당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평화당이 2%대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평화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옷을 입고 내년 총선 출마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빼든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인물 영입 또는 새로운 대안이 없는 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광주·전남의 야권 지지율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대안정치가 향후 민주당을 견제하고 민생정치를 이끌 수 있는 제3차 대안 세력 구축 등 필연적인 야권 정계개편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또 다시 오만해지고 있다는 지역 유권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세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면서 "여야 거대양당 체제가 아닌 이들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광주·전남·전북지역 평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이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비판할 예정이다.

이들 평당원들은 국민의당에서 쫓겨온 민주평화당이 다시 1년 6개월 만에 분당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 정치'이자 '철새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새로운 대안 세력을 구축해 정계개편을 시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탈당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평화당이 2%대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는 만큼 평화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옷을 입고 내년 총선 출마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빼든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인물 영입 또는 새로운 대안이 없는 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00여 마라토너 '힐링 코스' 뜨거운 질주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제5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가 11일 화순군 너릿재 일원에서 열렸다. 화순 소아르 갤러리 인근 대회장에서 출발한 6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명품 숲길을 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8·15 광복절 기념 제5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성료

전국 여느 마라톤 코스와 달리 짙은 녹음을 만끽하고 자연을 호흡하는 '너릿재' 코스를 달린 마라토너들은 엄지를 치켜세웠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씻어내면서도 '힐링 코스'를 완주한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8·15 광복절 기념 제5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가 11일 오전 전남 화순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 구간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전정배 민주평화당(광주 서구) 국회의원, 구충곤 화순군수,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마라토너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18·22면>

광주일보사와 마라톤세상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화순 소아르 갤러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너릿재 정상을 거쳐 광주 동구 너릿재 주차장을 돌아오는 코스로 진

행했다. 대회 선전에 이어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의 대회사로 막을 올린 이번 마라톤 대회는 5회 왕복하는 풀코스(42.195km)와 3회 왕복하는 25km코스, 1회만 다녀오는 8.5km 코스로 나뉘어 치러졌다. 올해에는 풀코스 릴레이가 신설돼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마라토너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너릿재 마라톤

대회는 과거 화순에서 광주를 오가는 옛길의 모습과 풍광을 고스란히 간직한 코스에서 진행돼 전국 마라톤 애호가들에게는 손꼽히는 여름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김여송 사장은 대회사에서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올해로 54회째, 흑서기 마라톤 대회가 5회째 열리는 등 광주일보사가 호남마라톤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마라토너들의 인내와 건강을 시험하는 무대가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개최식

세계 수영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개최식이 11일 오후 남부대학교 우정의 동산 야외 특설무대에서 성대히 펼쳐졌다.

<관련기사 5면>

마스터스대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됐지만,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연 경기를 하루 앞둔 이날 개최식이 열려 대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개최식에는 이용섭 대회조직위원장 겸 광주시

장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하메드 디움 FINA위원 그리고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열린 개최식을 즐겼다.

이용섭 조직위원장은 "수영동호인 모두가 광주에 머무는 동안 광주의 멋과 맛과 흥을 즐기면서 생애 최고의 감동과 행복이 함께하는 '평화의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조국 법무장관 지명 ... 장관급 10명 교체

월내 인사청문회 돌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5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4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김현수(58·행정고시 30회) 전 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64)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낙정됐다. 조 후보자는 38년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 내정자

다. 금융위원장은 은성수(58·행시 27회)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한상혁(58·사법고시 40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각각 내정됐다.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육군사관학교 36기)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에는 최선인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74)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이 각각 발탁됐다. 아울러 차관급인 국립교원장에는 김준형(56) 한

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